

## ‘민족’과 ‘사회’ 사이의 ‘횡보(橫步)’의 원리

— 염상섭의 장편 『사랑과 죄』를 중심으로

김 은 하\*

### 요약

이 글은 염상섭의 장편소설 『사랑과 죄』를 중심으로 염상섭의 문학적 ‘횡보’의 이면에 놓인 인식론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랑과 죄』는 192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 내부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운동의 어떠한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통합으로 대표되는 ‘중간적’ 노선의 실천적·이론적 원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염상섭은 현대 조선 청년들의 사상적 대립 이면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포착하고 방법으로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통합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다. 특히 염상섭이 문제 삼은 것은 ‘삼각동맹’으로 대표되는 주의자들이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형이상적 이해이며, 그것을 떠받치는 근대 철학 사조로서 허무주의적 경향이었다. 염상섭은 단독성으로서의 민족성을 인정하고 민족의 내부에서 외부에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윤리를 강조하며 또한 그러한 윤리적 관점이 ‘예술적 양심’으로 이어지는 문학의 공리적 시명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염상섭은 근대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기계적 인생관에 짓눌린 예술의 미적 가치를 회복시키고, 서구적 근대 또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일국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새로운 다원론적 세계사의 원리를 제시한다.

주제어: ‘중간적’ 노선, 과학적 사회주의, 허무주의, 윤리, 진선미의 미학, ‘횡보’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목차

1. 들어가며: '이중해방'이라는 시대적 과제
2. 과학적 사회주의 비판과 민족주의의 문제
3. 진·선·미의 미학 제기: 허무주의 비판과 미적 근대성 발견
4. 결론을 대신하여: '홍보'의 의미

## 1. 들어가며: '이중해방'이라는 시대적 과제

1927년 연재되기 시작한 장편 『사랑과 죄』<sup>1)</sup>는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국내외의 정치적·역사적 격변 속에서 한국 내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통합을 문제 삼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염상섭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중간적' 태도로서의 역사인식을 드러낸 본격적인 장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과 죄』를 시작으로 이후 이어지는 『삼대』, 『무화과』 등과 같은 중요한 장편들에서는 모두 한국 본토 내부의 조선공산당 결성과 관련되는 정치적 사건들을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자 서사적 장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자와 '심피사이저'형 인물와의 합작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새로운 형식과 속성의 사회주의의 실현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그만큼 작품에서는 염상섭의 '보호색'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따라서 작중 인물들이 공모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내용들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염상섭의 역사인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식론적 구조를 파악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단서로 삼아 볼 수 있는 것은 작품의 구체적인 서사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음에도 암시라고 느껴질 만큼 작가에 의해서 강조되는 역사적 시점들인데, 이러한

1) 염상섭, 『사랑과 죄』, 『동아일보』, 1927.8.15.~1928.5.4. (257회 원); 권영민 등 편, 『염상섭 전집』(2), 서울: 민음사, 1987.

시점은 염상섭이 처했던 역사적 시대의 과제를 파악하고 연속적인 역사인식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령 『사랑과 죄』는 1924년부터 1925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시점은 작품 속에서는 구체적 서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소한 부분들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다.<sup>2)</sup> 그 이유는 작중 인물들이 공모하는 ‘인삼사건’이 실제 1925년에 있었던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신의주사건)을 모티프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또한 작품에서는 문제적인 주변 인물로 보이는 심초매부라는 일본 낭인(浪人)을 통해 “이십여 년 전의 옛일”<sup>4)</sup>이 있었던 ‘을사오조약’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시간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 시점 역시 작품 속에서 결정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시간적 배경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시점에 대한 의도적인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작품이 을사오조약에서 조선공산당 결성까지의 연속적인 시간을 문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점이 작품의 전편 주제를 관통하는 염상섭의 역사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리라는 점이다.

기미년 당시 염상섭이 만세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통절한 교훈을 주었다고 선언한 것은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이었다.<sup>5)</sup> 그러나 불과 그다음 해 염상섭은 ‘세계 개조의 회의’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해방은 ‘이중해방’이어야 한다는 성찰을 드러냈다.<sup>6)</sup>

2) 작품에서 1924년이라는 시점은 구체적 서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강조되어 제시된다. 가령 해운에게 보낸 순영의 편지에서 1924년이라는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염상섭, 『사랑과 죄』, 같은책, 395면.

3) 인삼사건이 ‘신의주사건’에서 모티프를 차용했음에 관해서는 유문선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유문선, 「식민지 조선사회 욕망과 이념의 한 자리: 염상섭의 『사랑과 죄』, 『민족문학사 연구』 13권 1호, 민족문학사학회, 1998.)

4) 염상섭, 『사랑과 죄』, 같은책, 394면

5) 염상섭, 『독립선언서』(1919.3.19.),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소명출판, 2013. 수록, 43-44면.

6) 염상섭, 「이중해방」, 『삼광』, 1920.4.; 『염상섭 문장 전집』, 같은책, 72면.

이 글에서 그는 세계는 늘 ‘개조’하여 왔지만 진정한 ‘해방’은 없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진정한 개조는 해방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곡이 결코 길지 않은 이 글의 핵심은 “내적 해방과 외적 해방, 영(靈)의 해방과 육(肉)의 해방, 정치생활의 해방과 경제생활의 해방”<sup>7)</sup>이라는 문장으로 함축되며, 그로써 제시된 주체적인 민족해방의 방법론인 ‘이중 해방’의 목표와 내용의 함의를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중 해방’의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세계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염상섭이 마주했던 시대적 과제이다. 사실 ‘이중 해방’이 제기된 것은 염상섭이 앞선 시기 주류를 차지했던 세계 개조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거리를 둔과 동시에 한편으로 1920년대에 들어서서 사회주의의 동방화(東方化)가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역사적 상황을 의식했던 것과 연관된다. 이 글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는 베르사유-위싱턴 체제에 대한 코민테른의 대응에 해당하는 극동 피압박민족대회가 열렸으며, 극동의 피압박 민족에 대한 극도의 관심을 표한 이 회의에서는 “광범위한 민족연합, 즉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세력 동맹”이라는 레닌주의의 정책을 제기하였다.<sup>8)</sup> 그 후 소비에트와 코민테른의 지도하에 해외에서 먼저 발전되기 시작했던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 점차적으로 한국 본토로 옮겨지게 되면서 국내에서 조선공산당 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비밀리에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코민테른과 연결된 해외에서의 한국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 이르츠클루즈파와 상해파의 알력은 그대로 국내에 전해졌으며, 또한 일본과 국내에서 발전되어 온 사회주의 단체들인 화요회, 북풍회, 서울파 등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주의의 결들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민족주의 운동진영에서는 일부

7) 염상섭, 「이중해방」, 같은책, 73-74면.

8)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 공저, 한홍구 역,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파주: 돌베개, 2015.114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내부의 자치운동 세력을 배격하는 한편 일부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민족연합전선을 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이렇게 되어 1920년대 중반을 즈음하여 사회주의 일부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이 민족연합전선을 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염상섭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는 윌슨의 민족개조론과 레닌의 민족통합론을 참조체계로 삼되 그것들과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주체적인 ‘이중 해방’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론, 즉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통합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과제가 『사랑과 죄』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과 죄』의 〈작가의 말〉에서 염상섭은 “시대와 환경을 그리며 지금 조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그리려”는 목적을 밝힌 것만큼 『사랑과 죄』에서는 현대 조선 청년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삼총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sup>9)</sup>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삼총사’는 볼셰비키적 사회주의자와는 구별되는 사회주의자 김호연과 그러한 김호연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조선 귀족 출신의 미술가 이태춘, 그리고 허무주의적 성향을 가진 개인주의자 류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대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세대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는 바로 양립하는 상황에 처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진영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한편 『사랑과 죄』와 같은 해 씌어진 평론 「민족사회운동의 유심적 고찰: 전통, 민족, 문학과 관계」<sup>10)</sup>(이하 「유심적 고찰」로 표기)는 “지금의

9) 『사랑과 죄』에서의 ‘삼총사’의 인물 설정은 뒤마의 『삼총사』에서 영향 받은 것과 연관있다. 김경수는 염상섭이 『시대일보』에 『쾌한 지도령(快漢 池道令)』을 번역 연재했는데, 이 작품은 프랑스의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 1802-1870)의 작품 『삼총사(Les Mousquetaires)』(1844-1845)를 번역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염상섭 소설과 번역」, 『어문연구』, 35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230면.)

10) 이중호의 표현을 빌자면, 김윤섭은 “민족주의·제국주의·자본주의”라는 ‘삼각동맹’에 기초한

사려있는 조선 청년들의 번민의 한 가지는 (...) 민족운동으로인가? 아니면 사회운동으로인가? 그러나 그것이 것처럼 걱정일까?”<sup>11)</sup>라는 문제를 화두로 시작하는바, 같은 문제에 대한 당대 지식인으로서 염상섭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랑과 죄』의 중요한 상호텍스트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글은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양립의 문제를 ‘유심적’인 시각으로 고찰함으로써 둘을 통합하는 이론적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 ‘유심적’이라는 용어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사항이었다. 그것은 동아시아 지식 지형에서 진화사관이 이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대적 정신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 근대적 이성과는 위배되는 유심적인 것, 감성적 사유 등을 언급하는 것은 시대에 낙오한 전근대적 관념으로 치부되어 비난의 대상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민족해방운동의 이론으로써의 마르크스주의는 일종의 과학적 사회주의<sup>12)</sup>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세우는 근대주의적인 ‘과학’적 입장은 낡은 ‘전통’을 상기시키는 민족/민족주의와 대립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사랑과 죄』의 〈작가의 말〉에서도 ‘유심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작가의 말〉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정확한 독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짧은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글에서 염상섭

---

‘가치중립성’, ‘중산층 보수주의’ 등으로 귀결”시키는 것에 반해, 이보영은 “식민지적 시민사회의 일상적 가치를 초월한 윤리적 가치”이며 “민족해방투쟁”으로 형상화된 ‘정치적 윤리의식’으로 읽어낸다. 이종호, 『염상섭 문학의 대안근대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6-17면.

11) 염상섭, 「민족사회운동의 유심적 고찰: 전통, 민족, 문학의 관계」(전7회), 『조선일보』, 1927.1.4.~1.16.

12) “과학적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세계관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발생, 발전했으며, 그 내적 통일성은 엥겔스의 『반두링론』 및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발전』, 레닌의 『마르크스주의의 세 가지 원천과 세 가지 구성 부분』과 같은 책에서 해명되었다.” G. 그로서 외 편저, 송주명 역, 『과학적 사회주의』, 새길, 1990, 10면.

이 단적으로 제시한 주제는 “사랑은 백행이다”라는 잠언(箴言)과 같은 ‘유심적’ 표현으로 집약된다.

과연 사랑은 백행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생명의 근원은 사랑에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 사람의 모든 행위(百行)이란 그 생명의 발로요, 또한 생명의 발생적 방면으로 볼 지라도 사랑에서부터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빈 마음에서 솟아나는 순정이요, 진심이니, ‘빈 마음’이란 탐욕을 몰리친 마음입니다. 이기의 탐욕을 버리고 나설 때 전심(全心)·전령(全靈)·전정(全情)은 자기 이외의 모든 것에 향응하여 이를 용납하고 포용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국에 회생적 정신의 나타냄입니다. (……) 이런 말을 하는 나에게 유심론자라고 비웃을 사람이 있거든 비웃게 내버려두려 합니다. 다만 나는 지금 『동아일보』 독자들을 위하여, 나의 동포를 위하여 이 소설에 붓을 대이기 전에, 조선사람은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백성인가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 형제, 부부, 일가, 친척, 이웃, 동포, 인류끼리 얼마나 서로 죄를 지으며 불행한 생활에 시달리며 그들의 생명은 얼마나 시들고 줄어들어가는지 생각하여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선 이러한 표제를 내어 걸었습니다. (……) 소설이란 거짓말을 꾸민 것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이란 붓끝으로 새김질하여서 보는 이의 마음에 아름답고 깊은 감명을 줌으로써 말미암아 눈치 채지 못하였던 인생의 형용과 자기와 및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데에 공리적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환경을 그리며 지금 조선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그리려 합니다.<sup>13)</sup>

위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한 〈작가의 말〉에서 염상섭은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잠깐 언급해둘 것은 ‘생명’은 염상섭의 초기 평론에서부터 자주

13) 염상섭, 「작가의 말」, 『사랑과 죄』, 같은책, 9-10면.

등장했던 미학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어서 염상섭은 ‘사랑’이란 궁극적으로는 “이기의 탐욕”을 버린 “희생적 정신”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에 바탕하여 조선 사람들은 과연 ‘사랑’을 할 줄 아는 ‘민족인지를 질문하는데, ‘사랑’의 주체와 단위는 “부모, 형제, 부부, 일가, 친척, 이웃, 동포, 인류” 등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제시된다. 즉 염상섭에게 있어서 ‘사랑’은 인륜(人倫)이라는 보편적 감정에서 시작되어 세계적 단위까지 확장되어 가는 일종의 윤리 인식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윤리적 성찰이 “문학은 공리적 사명”이라는 예술관과도 연동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미루어볼 때, 『사랑과 죄』의 문제의식은 염상섭이 제시한 ‘이중해방’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진영 사이에서 주체적인 민족해방론에 대한 모색이라는 정치적 실천으로 드러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념적 판단을 가능하도록 하는 원리로써 그 이면에 놓인 인식론적 구조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만 작품의 주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염상섭의 역사인식 및 문학관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중해방’이라는 과제를 위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의 통합의 원리와 ‘사랑’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것일까?

상술한 점들을 전제로 하면, 작품의 주제인 ‘사랑’의 의미를 단순히 통속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윤식은 이 작품을 이데올로기와 풍속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독해하며 이념적으로는 빈약하지만 창작 기법으로서의 통속성의 전략으로서는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한다.<sup>14)</sup> 이 작품을 ‘풍속소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김윤식은 작품성의 미성숙함을 문제 삼으며 작가의 지적 수준에 대해 신임하지 않

14)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6, 365면.

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가령 일본 지식계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작가로서 특히 염상섭이 동 시기 중국을 주요 무대로 삼아 아나키스트로 활동하고 있던 신채호와 견주어 보았을 때 그 아나키즘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sup>15)</sup> 이에 김윤식은 『사랑과 죄』를 ‘염상섭 특유의 문제의식’ 돋보이지만 『삼대』로 가는 과정에 놓인 미숙한 작품이라고 평가 내린다.

그렇지만 이보영의 경우, 식민지 시기의 ‘염상섭 특유의 문제의식’을 난세(亂世)의 현실에 대항한 문학 정신으로 정의하며 『사랑과 죄』를 그 ‘저항적 중심’의 ‘태동(胎動)’이라는 위치에 자리매김시켰다.<sup>16)</sup> 특히 이보영은 이 작품의 창작정신은 염상섭의 변증법적 정신이라고 언급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와 인간의 문제를 전체적,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내면적 모순을 통한 발전을 구상”하는 점으로 인해 그러하다고 짧게 언급할 뿐이다.<sup>17)</sup>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가령 김윤식이 이 작품을 이데올로기의 축과 통속(풍속)의 축으로 나누어서 독해한 것은 정치적 서사와 연애 서사가 비등비등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작중 인물들이 정치적 역사적 이념 선택과 연애/사랑에 대한 인식이 동일한 논리로서의 윤리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 즉 사실상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의 두 서사는 긴밀하게 통합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렇다고 정치적 서사와 애정 서사의 전개 내용이 그 자체로서 각기 소설의 갈등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인삼사건’은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자 서사적 장치로 제시되지만

15) 김윤식, 『염상섭 연구』, 같은책, 374면: 392면.

16) 이보영, 『난세의 문학』, 서울: 예지각, 1991.

17) “『사랑과 죄』에서 횡보(橫步)의 창작정신의 원동력은 변증법적 문제의식이다. 사회와 인간의 문제를 전체적,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내면적 모순을 통한 발전을 구상할 때 필요한 그런 창작정신은 물론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횡보의 비판적 리얼리즘은 어떤 인간의 문제도 역사적 관계와 관련시켜서 생각하고, 모순을 통한 발전을 전개하는 그런 변증법적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보영, 『난세의 문학』, 같은책, 282면.

1924-5년이라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제시하여 그 사건이 조선공산당 결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는 점에 제 역할이 있으며, 일반적인 통속소설의 문법과 같이 남녀 주인공의 관념의 차이나 그들을 둘러싼 상황이 작품의 긴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작품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상/주의를 가진 주요 인물들의 의견 충돌이며 그러한 대립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노린 리얼리즘 효과이다. 리얼리스트로서 서술자는 직접 작품 속에 개입하여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지 않지만, 〈작가의 말〉에서도 선언한 바 있듯이 꾸밈없는 묘사를 통해 “보는 이의 마음에 아름답고 깊은 감명”을 줌으로써 소설의 공리적 사명에 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대와 환경을 그리며 지금 조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그리려 한다”라는 기획은 주요 인물들의 사상적 대립 장면을 통해서 그 내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화합하는 논리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삼각동맹’과 ‘중간 노선’의 이념적 대립과 ‘삼총사’ 내부의 윤리 인식 및 미의식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현대 조선 청년 ‘삼총사’의 내부에서의 대립은 ‘인삼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하여 인식론의 변증법적 통합을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작가 염상섭이 지향하는 정치적 노선이자 예술관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김윤식과 이보영은 실제 창작 시기만 놓고 보아도 『삼대』보다 앞서 있는 이 작품을 「만세전」, 『삼대』 등 염상섭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작품 계열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의 장편 서사의 초안(草案)으로서 보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작중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노선”이라는 근대적 대응을 각기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인 것으로 읽어낸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이종호가 지적한 대로, 시간적 간극이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이 두 연구가 결정적으로는 지난 세기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의 국내외의 획기적인 현실적 변화로 나뉘질 수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sup>18)</sup> 특히 이보영이 ‘사회주의와 민족’이라는 프

레이즘을 통해 염상섭이 독해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연구적 시점이 직접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변화의 구체적인 대두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시기에 이르면, 그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는 합리주의적이고 목적론적인 사고로서 비판되어 왔지만, 사회주의권이라는 대상이 소실되고 나서 다시 코뮌리즘이라는 형이상상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회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9)</sup> 즉 ‘마르크스’는 당독재의 사회주의, 즉 외부적 이데올로기가 부여된 정치적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학설로서의 마르크스가 새롭게 읽힐 수 있었던 가능성이 제공된 것이다.<sup>20)</sup> 그렇다면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마르크스 학설에 대한 재고(再考)가 어찌면 서구적 근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각기 근대적 전환의 참조체계로 상정하여 ‘이중 해방’을 고민했던 그때 그 시절 염상섭의 시점을 환기하도록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로서 이해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 위에서 새롭게 이해되는 사회주의, 그것과 민족/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통합이 염상섭의 가치중립적인 태도로서 ‘횡보’의 원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염상섭의 가치중립적 태도는 1920년대 중후반 식민지 조선이 처한 구체적인 이론적·실천적 난제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의 양립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 판단에서 시작된다. “조선의 현대 청년”들의 현실적 대응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는 『사랑과 죄』는 “염상섭 특유의 문제의식”의 원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장편 『사랑과 죄』를 통해 드러나는 염상섭의

18) “김윤식의 연구(1986)와 이보영의 연구(1991) 사이에는, 염상섭 연구를 둘러싼 세 가지 조건적 변화가 놓여있었다. ‘염상섭 전집’의 출간, 월북작가 해금조치(1988), 87체제의 성립과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1989)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학 내외적인 변화는 염상섭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종호, 같은글, 18면.

19) 가라타니 고진, 이신철 역, 『트랜스크리티크』, 도서출판 b, 2013. 12-15면, 참조.

20) 가라타니 고진, 김경원 역,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이산, 1999.

역사적 인식과 윤리적 의식이 통합되는 인식론적 기반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염상섭이 제시한 양 운동 진영의 실천적·이론적 통합의 원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정신과 물질이 융합된 제3제국”의 이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인류 역사의 새 실험’<sup>21)</sup>에 대한 탐색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에서 드러날 것이다.

## 2. 과학적 사회주의 비판과 민족주의의 문제

『사랑과 죄』는 작품의 시작에서 바로 그 전제에 있었던 중대한 정치적 사건은 ‘한희사건’을 언급한다. ‘한희사건’ 이후 그 주동인물이었던 한희는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변호사 김호연의 도움으로 상해로 망명 가고,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부로 근무하면서 사건에도 동조한 바 있는 지순영은 무죄로 인정받아 풀려난 상태이다. 이후 김호연을 중심으로 지순영, 리해춘 등과 주변 인물들은 함께 또 다른 정치적 사건인 ‘인삼사건’을 도모한다. 작품 속에서는 사실상 표면화되지 않는 과거의 ‘한희사건’과 한희라는 여성 사회주의자에 대한 언급은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인삼사건’과의 사상적 연결성을 암시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희사건과 ‘인삼사건’ 등은 각기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과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 등 사회주의 관련 사건들을 모티프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랑과 죄』 이후에 쓰여진 『삼대』에서 또한 6.10 만세사건 이후의 제2차 공산당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이 김병화가 속해 있는 사회주의 단체 북풍회의 행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상기시킨다면, 염상섭이 국내에서 전개되는 사회주의 운동 진영의 어떤 갈래에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주인공 및 속해 있는 단체는 일본과 직접적으

21) 염상섭, 『사랑과 죄』, 같은책, 58-59면.

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 들어서서 민족통합전선의 구축을 위해 코민테른과 직접 연결되어 발전되어 온 상하이, 연해주 등 지역의 어떤 갈래와 교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소비에트와 코민테른은 한국 본토에서 공산당이 형성되기 직전부터 레닌-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방침들을 지시했다.<sup>22)</sup> 즉 1920~1927년 소비에트와 코민테른은 레닌주의의 근본적 요소인 이 정책을 계속 반복했는데, 처음부터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협동 전선을 결성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sup>23)</sup> 하지만 이러한 코민테른의 일방적인 입장은 사회주의 ‘수입국’의 민족주의의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국내의 연합전선을 위한 움직임은 민족통합전선을 목적으로 하는 코민테른과 결과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상정한다고는 해도, 중요한 것은 자국의 주체적인 민족해방을 위해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1920년대 전반을 관통하는 염상섭 특유의 문제의식의 정치적 입장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작품 초반에서 이해춘과 김호연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을 타고 나가는” 정치적 노선에 합의된 ‘동반자’ 관계로 이미 설정되어 드러난다. 즉 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양립된 두 운동 진영의 ‘중간’을 타고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들이 추구해야 할 사회주의를 확인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어떤 사회주의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김호연의 발언을 통해서 그 전망이 제시된다.

“.....하여간 우리의 처지로서는 난숙퇴폐(爛熟頹廢)의 신구대륙(新舊大陸)의 문명에서 배울 것은 다만 하나 기계공업(機械工業)뿐이라고 생각하네. 금후의 세계와 인류는 유물주의(唯物主義)의 반동으로 유심주의(唯心

22)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 공저, 한홍구 역,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파주: 돌베개, 2015.114-115면

23)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 공저,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같은책, 193면.

主義) 사상이 왕성하여지리라고 생각 하네만은 나의 이상으로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 융합한 소위 제삼제국(第三帝國)이 정말 출현되어야 할 줄 아네. 하고 보면 물질주의적 방면은 서구 문명에서 구하는 동시에 정신주의적 방면은 동양 문명에 토대를 잡게 되겠지마는 일면에 있어서는 ‘인류의 새 시험’에서도 무슨 새로운 발견이 있을 줄 아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위선 한 번 신흥로서야의 실체를 가 볼 필요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네……”

“자네 말은 정반대가 아닌가? 유물주의의 러시아에서 유심적 경향의 것을 찾아 낸다는 말은 큰 ‘패러독스’가 아닌가”<sup>24)</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지듯, ‘사회주의자’ 김호연은 앞으로의 세계는 “물질과 정신의 융합한 제3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서 그는 “유물주의의 러시아에서 유심적 경향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리송한 호연의 발언은 그와 같은 입장에서 서 있는 해춘조차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워 일종의 ‘패러독스’가 아닌가 라고 의문을 표한다. 한편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류진은 미국으로 가려던 계획을 접고 러시아로 향하려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하지만 류진은 자신이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김호연의 입장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사실 류진은 허무주의적 경향을 가진 개인주의자로 그려지는데, 그는 해춘과 호연보다는 오히려 일본인 볼셰비키적 사회주의자 적토와 아나키스트 아마노와 가깝게 다가가 있다. 따라서 류진, 적토, 아마노 등 세 명으로 구성된 국제주의적 연대의 “볼셰비즘-아나키즘-니힐리즘의 삼각동맹”과 해춘과 김호연으로 구성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노선”이라는 대립이 형성되는데, 이는 당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전형적인 지식인들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각자 서로의 주의/사상에 따른 현실 인식에 대한 상이한 관점으로 말미암아 충돌하는데, 그 논쟁의 장면은 불은

24) 염상섭, 『사랑과 죄』, 같은책, 58-59면.

사상의 아지트인 카페에서 펼쳐진다.

두 사람의 논란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적토군은 해춘이더라 자작이라는 도금(鍍金)을 벗겨 버리고 제 바탕의 납덩이(鉛)이 되어서 무산전선(無產戰線)으로 나오되 민족주의라는 녹초가 된 비단 두루마기도 벗어젓히고 나와야 한다고 권고를 하였다. 납덩이라는 말은 적진에 쏘는 탄환의 끝에 물린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해춘이는 “납덩이가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 도금장식은 갈보의 (머리의) 뒤꽂이에나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라는 것은 낡은 비단 두루마기가 아니라 입지 않을 수 없는 수목 두루마기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산장려의 수목 두루마기요?”하고 적토군은 코웃음을 쳤다. 적토군의 의견으로 하면 물산장려가 몇 사람의 중간 계급인을 모아서 한 사람의 대자본가를 만들어 내자고 한 선언(宣言)에 지나지 않은 것과 같이 민족운동이라는 것도 자본주의나 제국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발줄 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쓰아’의 신민이든 ‘슬라브’민족이 ‘소비에트’ 통치하에서는 ‘슬라브’ 민족이 아니라고 누가 주장하드냐?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태반(胎盤)에서만 숨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고 공박을 하였다……

두 사람은 상당히 취한 모양이나 말의 조리는 잃지 않았다. 그대로 두면 어느 때까지 논전이 계속될지 몰랐다. 그러나 별안간 뒤에서 (……)<sup>25)</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지듯, 주로 논란은 주로 적토와 해춘에 의해서 오고 가는데 그 내용은 역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것”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적토는 귀족인 해춘이 무산 전선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라는 녹초가 된 비단 두루마기도 벗

25) 염상섭, 『사랑과 죄』, 같은책, 211면.

어”던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적토의 이러한 관점은 ‘계급’을 차용함으로써 ‘전통’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적폐로 치부하여 완전히 부정하는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근대주의적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토의 시선에서 보면 해춘은 무산계급 대중과 동일선 상에 나서지 않는 부르주아적 예술가일뿐더러 더욱이는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가 타파해야 할 낡은 전통의 잔재를 영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적토의 관점은 당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혁명을 주장했던 주의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나키스트들 역시 과학적 사회주의로써 마르크스 학설을 참조하여 사회혁명을 꾀했다는 점에서는 근대주의자의 범주에 해당한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일종의 과학적 사회주의로써 인식되고 근대주의의 가치로서 받아들여졌던 지식 지형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들의 ‘확신’은, 경제적 하부구조가 일체 상부구조를 결정 짓는다는 경제적-사적 유물론의 합리성과 과학성에 대한 굳은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사실 이 자체는 이미 주의화 되어버린 마르크스 학설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인 것이다.

따라서 해춘이 이들 ‘삼각동맹’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곧 분열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은 바로 그들이 ‘과학’적 이론에 가려진 ‘민족’을 보지 못한 채 ‘계급’만을 취하고자 하는 단순함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춘의 질타에 대해서 아나키스트 아마노는 “지금의 조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공통되는 일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을 해보지만, 사실 이러한 잠정적인 전략 자체가 그들의 투철하지 못한 이론적 맹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삼각동맹’은 “우선 ‘반항’이라는 일점에서 지기 상통하는 것”, 즉 저항적 민족주의의 정서를 계급 주체의 형성에 적용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선각자적 엘리트들에 의해서 ‘계몽’된 계급의식을 지닌 민중적 주체들이 과연 진정으로, 또 지속적으로 주체적인 것인가 라는 것

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 자신조차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민족(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해춘은 일단 “민족주의라는 것은 낡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입지 않을 수 없는 수목 두루마기 같은 것”이라고 언급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적토는 즉각 “물산 장려의 수목 두루마기요?”라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민족 대 민족’의 착취를 자민족의 자본주의적 발달로써 방어할 수밖에 없는 답안”<sup>26)</sup>에 이른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이 처한 상황의 역설적 모순을 꼬집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적토는 해춘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로 오해하여 (또는 볼셰비키적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서는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구분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 민족주의 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애매성이야말로 민족해방론으로서 수입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의 문제가 얽혀있는 “피압박민족, 피착취민족의 딜레마”<sup>27)</sup>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볼셰비키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 전체를 부정하는 명쾌한 논리로서 해춘을 봉건적인, 그리고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로 낙인찍어버리는 식으로 ‘승부’하지만, 사실상 해춘과 같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는 주체적인 민족해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계급’을 수입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민족/민족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간단히 외면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만약 적토의 관점에 따르면 자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을 소베트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되지만,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세계사적 원리가 과연 피압박민족의 ‘이중’적인 해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춘이 이들의 앞으로의 분열을 예상하고 날카롭게 지적한 것

26) 염상섭, 「유심적 고찰」, 같은책, 537면.

27) 염상섭, 「유심적 고찰」, 같은책, 537면.

은 볼셰비키 주의자과 아나키스트들은 실재하는 민족주의를 간과하고 있으며 이 점이야말로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사상사적 문제이라는 점을 공론화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실상 이때쯤은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 사이에 확연한 분계선이 있지 않았다”라는 서술자의 개입은 작품 밖의 시점에서 염상섭이 당시 사상계에서 가장 큰 화두로 부상했던 아나-볼 논쟁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사실 염상섭은 근대 초반 아나키즘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sup>2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아나-볼 논쟁에 직접 개입하거나 또는 의견을 언급한 바는 없었다. 다만 염상섭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기제가 거세지자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긍정하지도 않는 ‘중간적인 입장을 드러냈을 뿐이다. 그가 취한 ‘중간적인’ 입장은 사실 그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가져야 할 기조에서 그 입장이 잘 드러난다. 염상섭은 작금의 프로문학의 목표는 ‘계급’을 통해 “목은 관념”을 해방하여야 하는 것이지만,<sup>29)</sup> “그러나 다만 퇴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sup>30)</sup>이라는 역설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프로문학의 기조와 목표는 “새로운 생활을 자율하고 지지할 만하고 새로운 사회를 가질 새 사람의 새 관념을 바꾸어 가져야 할 것”으로 정의되며, 이 과정에서 그가 재차 강조하는 것은 “관념이 세력이라는 것이 의외에 위대하다는 사실을 결코 경시하여서는 아니 된다”<sup>31)</sup>고 제시한다. 여기서

28) 염상섭 문학과 근대 초반 아나키즘 사상과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한기형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지적 태도: 잡지 『삼광』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3호, 한민족어문학회, 2003.)

29) 염상섭, 「계급문학을 논하여 소위 신경향파에 여(興)함」(전7회), 『조선일보』, 1926.1.22.~2.2.; 『문장』, 같은책, 470면.

30) 염상섭, 「민족사회운동의 유심적 고찰: 반동, 전통, 문학의 관계」(전7회), 『조선일보』, 1927.1.4.~1.16.; 『문장』, 같은책, 515면.

31) 염상섭, 「계급문학을 논하여 소위 신경향파에 여(興)함」(전7회), 『조선일보』, 1926.1.22.~2.2.; 『문장』, 같은책, 470면.; 염상섭, 「민족사회운동의 유심적 고찰: 반동, 전통, 문학의 관계」(전7회), 『조선일보』, 1927.1.4.~1.16.; 『문장』, 같은책, 515면.

‘관념’은 근대적 정신으로서의 합리성과 과학적 태도로 학문을 수용하는 태도이자, 특히 과학적 사회주의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부정되어 버린 ‘민족/민족주의’가 떠안게 되는 위험에 대한 예언인 셈이었다. 이 점이 곧 염상섭이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문제 삼았던 지점이었던 것이다. 즉 작중 해춘의 비판은 ‘이중 해방’을 위하여 ‘계급’은 필요한 것이지만, 만약 사회혁명을 목표로 하는 ‘계급’주의자들이 진실한 민족주의라는 자산을 폐기할 경우, 민족주의는 그들이 모두 ‘적’으로 상징하는 제국주의에 의해 간취될 수 있다는 비판적 사유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볼셰비키적 사회주의자 적토와 김호연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를 파악하고 나면, 형이상학적으로 편향된 ‘유물적인 마르크스주의’를 관념론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즉 마르크스 학설이 실존주의적 측면이 가지는 혁명성을 주체적인 자국의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구체적 실정에 뿌리내리도록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외적과 내적인 해방”이라는 ‘이중 해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양심적 지식인들의 지성을 효율적으로 집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아나톨의 통합과 분리라는 문제는 모두 민족주의의 문제를 간과했음에 있다. 실제의 문제인 ‘민족’을 간과한 아나톨 논쟁은 추상적이었으며, 따라서 염상섭은 이 논쟁에 대해서 침묵했지만 각각의 맹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아나키스트들은 개인과 사회, 민족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을 수 없는 자기모순으로 인해 추상적으로 치우쳤고, 상대적으로 볼셰비키주의자들은 강력한 ‘과학’적 합리성을 내세움으로써 승부수를 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경직된 학문의 자세로 받아들여진 ‘과학적 사회주의’가 동방 피압박민족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미처 해결하지 않고 지나친 민족주의의 문제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파시즘적 민족주의 앞에서 비판력을 상실하고 말

왔던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메이지 시기 이래 서구 근대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아시아주의 내부의 주체적인 민족주의의 성격을 군국주의적 민족주의에 내어주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1924년이라는 시점에서, 해춘과 호연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근대주의로서 ‘수입’된 사회주의 이론의 형이상학적 편향을 바로 잡고 실재하는 민족주의의 문제와 잘 결부시키는 것이었다. 김호연이 제시했던 ‘페리독스’의 수수께끼인 “유물주의의 러시아에서 유심론적 경향을 찾”는 과제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 3. 진·선·미의 미학 제기: 허무주의 비판과 미적 근대성의 발견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랑과 죄』는 “조선의 현대 청년”의 모습들을 리얼하게 그려내어 보여주면서 ‘중간파’로서 김호연과 이해춘이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적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 한 일면이 바로 앞선 장에서 다룬 그들의 입장과 대립되는 ‘삼각동맹’의 과학적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유물사관이었다면, 또 다른 한 대립은 그러한 역사적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는 서구 근대적 철학 사조에서 연원한 허무주의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구리야가와 하쿠손(厨川白村)에 의해서 지적되었듯, 동아시아 지역에서 “근대적 정신은 과학을 기초로 하고, 모든 현상을 물질의 맹동(盲動)”으로 보는 물질적·기계론적 세계관은 하나의 광범한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났다.<sup>32)</sup> 자신을 “일체의 물질적 맹동”<sup>33)</sup>이라고 인식하는 류진이 바로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가진 허무주의적 개인주의의 사상 및 물질적·기계론적 세계관은 바로 현대 조선 청년들의 축소판으로서의 ‘삼총사’ 내부의 통합을 방해하는 ‘적’이었던 셈이다.

---

32) 구리야가와 하쿠손, 임병권·윤미란 역, 『근대문학10강』, 글로벌벤티츠, 2013. 105면

33) 염상섭, 『사랑과 죄』, 같은책, 269면.

김호연이 ‘신흥러시아’의 민중에 대한 관심과 달리 허무주의자 류진이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과거 러시아의 혁명적 나로드니키주의,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등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과학’에 대한 신봉과 사회적 공리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존재로서의 종교, 철학, 예술, 및 도덕 등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이다.<sup>34)</sup> 가령 허무주의자로서 류진의 캐릭터는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의 바자로프의 인물형상에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허무주의는 1860년대의 러시아에서의 농노개혁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 해방운동에서 나타난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의 문화적 경향이다. 신세대인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의 과학적이고도 유물적인 세계관을 무기로 삼아 기성세대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귀족들과 대항했던 것이다.

하지만 염상섭은 과거 러시아 역사적 맥락에서 ‘반동’적 역할을 담당한 혁명적 민주주의가 현재의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있어서도 동일한 혁명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드러냈다. 「유심적 고찰」에서 그가 “혁명 전의 아라사 문학”에서 “취재(取材)한 투르게네프의 작품”이 시대낙오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원인은 그 ‘반동’의 “사상 그 자체, 감정 그 자체가 부르주아생활에서 우리나라” 노예적 도덕이기 때문이다.<sup>35)</sup> 사실 ‘반동’은 염상섭이 슈티르너의 ‘유일자’ 개념에서 차용한 개념으로써 그의 초기 평론에도 자주 등장한바 있으며, 염상섭은 이 개념을 통해 근대적 자아의 각성을 촉구해왔다.<sup>36)</sup>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염상섭은 무목적성을 띤 ‘반동’의 태도를 경계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반동’은 낡은 관념을 해체하여 근대적 개인을 발견해내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

34)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이경식 역, 『러시아지성사』, 종로서적, 1980, 109면.

35) 염상섭, 「유심적 고찰」, 같은글, 513면.

36)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이경민, 「염상섭의 자기혁명과 초기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60권0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인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반동’의 원리만으로 ‘민족’이라는 관념 자체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적 태도와 이기적 개인주의로 귀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허무주의적 성향을 지닌 개인주의자 류진이 ‘민족’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의 난감한 상황을 통해서 제시된다. 특히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 구도는 류진과 그의 아버지 류택수를 통해 오마주된다. 가령 류진은 아버지가 지어준 자신의 이름이 “현대 조선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자조(自嘲)적으로 말한다. 그것은 류진의 이름은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아나기 스스무”로써 일본인 이름처럼 들린다는 것에 이유가 있다. ‘류(柳)’라는 성씨 자체가 조선의 성씨이기도 하지만 “일본적인 성씨”처럼 보이기도 하거니와,<sup>37)</sup> 이름도 역시 일본 사람으로 보이도록 지은 것은 그의 부친 류택수의 의도적인 작명으로서 친일파 실업가의 생존 방편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름과 관련된 주인공의 콤플렉스는 『사랑과 죄』와 같은 해 씌어진 단편 『남충서』에서 중복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작품에서도 “남충서”라는 이름이 일본말로 ‘미나미 다다오’라고 부르면 꼭 일본 사람 이름 같이 보이는 고로 충서의 부친은 특히 이런 점을 “사랑 삼”<sup>38)</sup>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충서』에서는 작품의 말미에 “장편의 성질(性質)을 가진 제재(題材)의 일점(一點)을 택(擇)하여 횡단면(橫斷面)을 묘사(描寫)함임을 주의(主意) 깊은 독자에게 특히 일언(一言)하여 둔다”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같은 해 장편으로 전개된 작품 『사랑과 죄』인 것을 고려할 때, 사실 류진과 남충서는 동일인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랑과 죄』

37) 『무화과』(염상섭, 『매일신보』, 1931.11.13.-1932.11.12.(329회 완))에서는 카페 보도나무가 ‘버드나무’의 일본식 발음으로 ‘아나기’라는 성씨를 가진 “일본인 남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38) 염상섭, 『남충서』, 『동광』 9-10호, 1927.1-2.; 권영민 등 편, 『염상섭 전집』(9), 서울: 민음사, 1987. 277면.

에서 전면화 되지 않는 류진의 서사는 그 “횡단면을 묘사한” 『남충서』와 겹쳐 읽을 때 그의 상황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류진과 남충서는 모두 모두 친일과 사업가와 일본인 첩 사이의 서자(庶子)로 태어난 혼혈아적 콤플렉스를 가진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태생적으로 아버지의 민족일 수도 어머니의 민족일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을 갖게 된 그들은 숙명적으로 민족/국가를 부정하는 아나키즘과 가까워지고 또 허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름과 관련된 남충서의 콤플렉스는, 테러리스트 단체 ‘p.p단’ 두목으로 활약하는 그가 동지로부터 “부르주아들은 이름이 대체 몇 개야”라는 농담을 들었을 때 자신의 태생적인 정체성이 동지들의 신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점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장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남충서의 괴로움은 동아시아 연대의 사회혁명을 꾀하는 지식인 및 혁명가들이 민족국가로서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때 넘어설 수 없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사이의 모순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랑과 죄』에서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남충서와 동일인물로 볼 수 있는 류진이 속한 불세비즘·아나키즘·허무주의의 ‘삼각동맹’이 투쟁의 방법론으로써 테러리즘을 취할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허무주의적인 ‘반동’이야말로 염상섭이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한 ‘반동’의 부정적인 측면인 것이다. 즉 류진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찾아왔지만만, 그러한 부정이 계속 될수록 민족성을 포함한 자신의 전부를 부정해야만 하는 추상적인 국제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을 겪는 것이다. 그러던 중 충서는 어머니 미좌서(美佐緒)가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결국 인간은 “민족의 전통이라는 짐”은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sup>39)</sup> 요컨대, 혼혈아 콤플렉스를 가진 국제주의적 테러리스트 남충서의 내적 갈등을 통해

39) 염상섭, 『남충서』, 같은책, 289면.

‘민족’성에 대한 취사(取捨)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남충서가 결과적으로 ‘민족’을 자기 정체성의 극복의 계기로 삼았듯이,<sup>40)</sup> 『사랑과 죄』에서의 류진 역시 그러하다.

특히 류진은 결정적으로 ‘인삼사건’에 연루되어 투옥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선회하게 된다. 물론 작품은 검열을 우려하여 류진이 투옥 중 무엇을 경험하고 목도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문맥으로부터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은 류진은 함께 투옥했던 지순영, 김호연과 같이 민족의 사업에 투신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인간성의 ‘숭고(崇高)’의 미(美)로서의 ‘선(善)’을 발견하였으리라는 점이다.

사실 물질적·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진 류진은 정치적 이념과 역사 인식을 포함하여 기타 예술, 사랑, 성(性), 가족 등과 같은 문제들에서 해춘과 호연과 의견 대립해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립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중 해방’의 내용들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가령 작중 류진은 해춘과는 예술과 관련되는 ‘신의 존재’ 여부의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또한 호연과는 아내 해정과의 관계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두고 의견 대립한다. 기계적·물질적 세계관을 가진 류진은 형이상학적 유물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 자체를 현상에 대한 모방으로 보고 또한 ‘성’의 문제를 ‘식색(食色)의 본능’이라는 물질적 차원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그는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가족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이러한 류진과는 달리 미술가 해춘과 호연은 상당히 ‘유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해춘은 “사랑의 봉사라는 실천도덕”이 ‘예술적 충

40)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혼혈성’의 민족성을 문제 삼은 연구논문들은 두 가지의 독해방식을 보여준다. 범박함을 무릅쓰고 분류를 하자면 혼혈성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과 거대담론과는 무관하게 일상성으로 흡수되었다는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김경수의 논문(「식민지의 삶의 조건과 윤리적 선택: 『사랑과 죄』, 『염상섭소설연구』, 김종균 편, 국학자료원, 1999.)과 후자의 경우 이정은(「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혼혈의 양상과 의미」,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을 들 수 있다.

동’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또한 호연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인류의 위대한 사업”에 대한 소명과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얼핏 보아서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되는 이들 사이의 대립의 내용은 사실상 개인과 사회, 그리고 민족이라는 주체의 관계 설정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도덕/윤리 인식의 차이에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또한 직접적으로 예술관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신이란 무언가?”

“우주를 섭리하는 진리로 보아서는 대자연의 이법(理法) — 창조미(創造美)로 보아서는 예술미의 실재(藝術美의 實在) — 종교적 감격으로서는 인류 생명의 근원인 사랑(愛) 권화(權化) ... 우선 이렇게 설명하려네만은 이것을 자기 생명에 실현한다는 점으로 보면 자기의 행위를 자연의 법리에 합치케 하는 것이요, 예술적 충동(藝術的 衝動)은 창조미의 표현이 되고 종교적 감격(宗教的 感慫)은 사랑의 봉사(愛의 奉仕)라는 실천도덕(實踐道徳)으로 발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종교상으로 ‘하느님이 내게 있다’ 하거나 또는 자기실현(自己實現)이라는 말은 결국에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나는 진·선·미의 삼위일체를 신(神)이라고 생각하네만은 신 — 즉 하느님이란 말은 완전(完全)이라는 말일세... ..”하며 해춘이는 열심히 자기의 예술관을 논변하려니까 (.....)<sup>41)</sup>

위의 인용문은 해춘이 류진과 ‘신(神)’의 존재 여부를 두고 논쟁 중 자신의 예술관과 연결시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작품 속에서 류진과 해춘은 모두 ‘신’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각기 완전히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근대주의자’ 류진은 데카르트적 개인의 발견 및 유물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근대적 개인으로써 보편종교라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나

41) 염상섭, 『사랑과 죄』, 같은책, 139면.

이에 반해 이해춘이 ‘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복잡한 것인데, 해춘 자신의 말로 표현하자면 ‘신(神)’이란 곧 “진·선·미의 삼위일체”이며, 그것은 또한 예술의 핵심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해춘의 예술관은 염상섭 자신의 것이기도 한데, 그는 일찍 초기 평론들에서 진선미의 미학을 언급한 바 있었다. 그는 ‘생명’, ‘개성’은 ‘예술’과 ‘사랑’이라는 도덕/윤리와 통합되어 진선미의 미학을 완성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위대한 개성의 표현만이 모든 이상과 가치의 본체(本體), 즉 진·선·미로 표징(表徵)되는 바 위대하고 영원한 사업이 인류에게 향하여 성취케 하는 것이다.”<sup>42)</sup>

여기에서 염상섭의 ‘선(善)’의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지상선(至上善)을 위하여」<sup>43)</sup>라는 평론에서 노라와 예수를 비교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염상섭에 따르면 노라와 예수는 모두 ‘반동’적 인물이지만 ‘반동’을 통해 얻은 ‘자아’를 ‘타협’하거나 또는 ‘확충’했다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며,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선(善)’의 여부이다. 즉 염상섭이 정의하는 ‘지상선(至上善)’은 “진구(陳舊)한 자기에 대하여 반역하고 새로운 자아를 확충하며 완성”<sup>44)</sup>하는 ‘반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그것은 ‘용기’와 ‘희생’이라는 이타적인 성격으로서의 ‘사랑’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선(至上善)’은 진정한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것은 개인으로서 ‘인류와의 일체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善)’의 의미는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太郎)로부터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의 연구(善の研究)』(1911)에서 니시다 기타로는 개개인이 인류를 위해 산다는 것, ‘인류와의 일체화’ 욕구야말로 ‘선(善)’이라고 말하고, 그보다 깊은 욕구로서 종교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신(神)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신’이란 저마다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영원의 참생명’과의 일체화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

42) 염상섭, 「개성과 예술」, 『개벽』, 1922.4. 196면.

43) 염상섭, 「지상선(地上善)을 위하여」, 『신생활』, 1922.7.

44) 염상섭, 「지상선을 위하여」; 『문장』, 같은책, 205면.

명한다. 또한 니시다 기타로는 세계의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자살하는 청년이 속출하는 시대, 인간의 지(知), 정(情), 의(意)가 따로따로 발달해 버린 시대에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개인에서 출발하여 의식이 일체화되는 대상을 가족, 향토, 사회, 민족, 아시아, 인류, 자연, 우주로 높여가는 구도를 제시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내셔널리즘도 이러한 하나의 단계라고 말한다.<sup>45)</sup> 즉 니시다 기타로의 ‘선(善)’에 대한 해석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 민족을 매개하는 윤리 인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 인식을 통한 개인, 사회, 민족 등에 대한 관계 설정은 「유식적 고찰」에서 염상섭이 제시한 ‘흙’에 대한 ‘사랑’에 관한 논의와 유사하다. 이 글에서 염상섭은 민족성이란 “흙에 얽매인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흙’에 대한 ‘사랑’은 마치 “본능적인 모성애”와 같이 절대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본능적 인정(人情)”으로서의 ‘모성애’는 ‘형제’, ‘혈통’, ‘부족’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민족적 관념’을 이루고 ‘인류’까지 발전된다.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는 ‘흙’이라는 ‘민족’성에 의존하는 문명의 단독성(singularity)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으로서의 개인과 사회를 매개시킨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단독적인 민족적 개성을 공유한 내부로서의 문명공동체를 통합시키고, 외부와의 보편적 인류애를 통해 평등하고도 동등한 지위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염상섭의 ‘흙’에 대한 ‘사랑’ 논의는 윤리학자 와츠지 테츠로(和辻哲郎)의 『풍토(風土)』론이 지니는 문명론적 입장과 유사하다. 『풍토』는 인류의 사회형태와 자연 풍토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와츠지가 인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때의 핵심적 관심은 인류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와 자연·풍토의 상호적인 영향 관계라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근대 서양철학에서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개체의

45) 니시다 기타로에 관한 부분은 스즈키 사다미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 『일본의 문화내셔널리즘』, 도서출판 소화, 2008. 184-185면.)

주관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며, 그가 반복해서 풍토의 역사성과 역사의 풍토성을 강조한 본뜻은 개인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서양철학의 주관·객관의 대립구도를 해소하겠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sup>46)</sup>

그런데 염상섭은 미적 영역의 범주에서 주객체의 전도를 통해 서구적 근대와 구별되는 미적 근대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염상섭이 작품 속에서 ‘연애’와 ‘예술’의 공통점을 모두 주관으로서의 윤리 인식임을 강조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연애의 문제에 관해 보자면, 작품에서의 애정 서사는 이해춘을 중심에 둔 지순영과 정마리아의 삼각구도로 특징지어진다. 그런데 그중 결과적으로 이해춘의 연애 상대로서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은 ‘희생적 사랑’을 감내하는 인물인 지순영이다. 특히 작품의 후반부에서 이해춘은 지순영을 모델로 그림을 그릴 때 마리아 이미지와 겹쳐놓는데, 그것은 그녀가 ‘노라’와 달리 여성적 ‘예수’의 ‘선(善)’의 덕목을 갖춘 인물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실 작품 속에서 직접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한 김호연, 그리고 동조적 인물 이해춘을 제외하고 ‘한희사건’과 ‘인삼사건’을 비롯한 사회주의의 관련 운동에 시종여일하게 자발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지순영이다. 그녀는 한희와 김호연과 같은 순교자적 인물들에 존경심을 표하며 그들의 사업에 동조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때 마저도 그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진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한희와 김호연과 같이 민족의 독립운동에 자신의 생명을 투신하는 인물들은 “일신 일생을 고난(苦難)에 바치려고 십자가를 지고 나온” 순교자의 형상에 가까우며, 세브란스 간호부<sup>47)</sup>로서 자신 또한 그러한 인물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46) 와츠지 테트로에 관한 부분은 쑤꺼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쑤꺼, 류준필 외 역,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비, 2003. 76-79면.)

47) 3.1운동 직후 혈성단부인회, 대한조선독립애국부인회,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등 민족 운동 조직과 비밀 결사 송죽회 등이 결성되어, 자연스럽게 통합되면서 주요 상해 임시정부의 여성대표기관으로서 항일여성단체로 성장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특히 간호사를 직업으로 하는 신여성들이 한 축을 이루었다. 상해로 망명간 ‘한희’라는 인물과 지순영이 세브란스 간호부라는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정마리아의 경우, 예술가라는 직업이나 차린 복색으로부터 볼 때 ‘근대’적인 여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모던’, ‘예술’에 대한 이해는 마치 그녀가 서구 근대적 패션으로서 ‘단발머리’를 모방하는 것과 같이 피상적인 근대성의 수용과 여성 해방 인식을 보여준다. 즉 삼각구도를 통해 이 두 여성 인물의 여성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염상섭이성의 문제 및 여성해방의 문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염상섭은 여자 단발머리에 관한 사회적 현상을 문제 삼아 ‘성(性)의 문제를 기계적·물질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관념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다.<sup>48)</sup> 기계적 물리적인 인생관은 양성(兩性)문제를 ‘사랑’이라는 윤리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물리적인 ‘성’의 충돌의 문제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류진 역시 ‘성의 문제를 다만 ‘식색(食色)의 본능’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김호연은 낡은 가족주의 관념에 대한 퇴치와 여성주의에 대한 지지가 ‘악마적 충돌’과 같은 ‘사닌주의’<sup>49)</sup> 같은 것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염상섭은 ‘연애’를 물리적 성(性)의 차원을 넘어서 인격적 요구가 투영된 감정으로서의 ‘사랑’의 한 유형으로 정의한다. 그는 동물들의 연애적 현상인 성과 생식 본능의 맹목적 수행과 구별되는 인간의 연애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연애생활로서 자기의 생활을 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향상케 하려거나 영혼의 순화를 꾀한다는 등 인격적 요구”를 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여기에서 ‘영혼의 순화’는 ‘순일(純一)한 연애’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진정한 연애란 “자기의 독이성(獨異性)을 그 상대 형상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랑’의 감정은 “상대 형상 내의 자기발견의 기쁨”<sup>50)</sup>을 발견하데, 이는 관찰자의 주관

직업으로 설정된 것은 이와 같은 실제 상황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48) 염상섭, 「여자 단발문제와 그에 관련하여: 여자계에 여함」, 『신생활』, 1922.8.

49) 염상섭, 『사랑과 죄』, 같은책, 259면.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결합을 통해 서로 인격적 승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귀족 출신의 민족주의자이며 사회주의에 동조적인 인물인 해춘은 간호부 출신으로 사회주의 활동에 가담하는 순영에게서 미(美)를 발견하고, 그러한 그녀와의 애정 결합을 통해 ‘영혼의 순화’를 이루고 인격적 향상을 획득하는데, 이는 ‘사랑’에 기반한 부르주아지와 무산대중이 우애/공감의 감정(사랑)을 통해 이루는 진정한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하자면, 염상섭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아의 발견 및 자아의 확충을 통한 지상선(至上善)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를 연결 짓는 감정적 연대로서의 우애로써, ‘연애’ 역시도 그러한 ‘사랑’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단지 통속성으로서의 ‘연애’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한편 진정한 연애를 통한 영혼의 순화를 통해 이해춘이 미술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진다. 사실 작중 이해춘은 정마리아와 교제를 하면서부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후 ‘인삼사건’을 계기로 지순영과 진정한 사랑의 결합을 하면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술의 경지를 경험했다고 말해진다. 관찰하는 주체로써 해춘의 눈에 비쳐지는 모델 순영은 “여자의 숭고(崇高)한 영혼이 보는 자에게 위대한 힘으로 순결이라는 감화를 무의식간에 주게 하는 것이다. 또 그 찰나(刹那)의 상을 포착하는 자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술미(藝術美)가 실재”<sup>51)</sup>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예술미를 획득하는 조건으로써 숭고미를 갖춘 예술의 대상 자체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행위주체의 주관인바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관찰자 윤리적 의식이다. 이는 주객의 전도를 통해서 대상을 발견함으로써 의미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점에 염상섭이 사랑과 예술에 대한 이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의 대상과 예술의 대상은 모두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주체의 주관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데카르트적 코

50) 염상섭, 『감상과 기대』, 같은책, 418면.

51) 염상섭, 『사랑과 죄』, 같은책, 359면.

기토를 부정하는 염상섭의 근대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칸트 식으로 표현하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이다.<sup>52)</sup> 요컨대, 염상섭의 미학론은 사랑의 대상과 예술의 대상을 발견해내는 주체의 주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인 서구적 근대의 가치를 부정하고, 미학적 범주에서 주체적인 동양적 근대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하면, 염상섭이 주인공 이해춘을 미술가라는 직업을 가진 인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사실 작품 『사랑과 죄』를 제외하고도 염상섭의 소설에서는 미술 작품에 대한 논의나 미술가 표상이 자주 등장한다. 가령 『이십』<sup>53)</sup>에서 동양화와 서양화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며, 『모란꽃 필 때』<sup>54)</sup>에서도 주인공 인물은 꽃의 이미지에 은유되는데, 그것들은 각기 아메리카니즘과 오리엔탈리즘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실 이러한 미학적 관점은 사상사적 측면에서 오카쿠라 텐신을 위수로 하는 ‘아시아일체론’의 아시아주의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흔히 근대 일본에서는 두 가지의 아시아주의의 흐름이 있었다고 얘기되어 지는데, 『동양의 이상』을 통해 “동양은 하나다”를 주장한 오카쿠라 텐신과 ‘탈아입구’를 주장한 후쿠자와 유키치로 대표된다. 미술의 영역에서 ‘동양’의 일체성을 발견했던 오카쿠라 텐신의 문명론적 입장은 서양열강에 의한 식민지화라는 운명에 처해있던 동양에서 적극적 동일성을 발견해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sup>55)</sup> 따라서 그의 아시아주의는 서구

52)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불렀던 것은, 인간에게 하나의 ‘현상’으로 인정되는 세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입장을 제공해주었다. 그것은 세계를 그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의 복사본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나 범주를 ‘던져 넣음’으로써만 구성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어떤 관점을 함축한다.” 가라타니 고진, 김재희 역, 『은유로서의 건축』, 한나래, (초판: 1998), 2007. 37면.

53) 염상섭, 『이십』, 『매일신보』, 1928.10.22.-1929.4.24.(172회 완)

54) 염상섭, 『모란꽃 필 때』, 『매일신보』, 1934.2.1.-7.8.(153회 완)

55) 오카쿠라 텐신은 미학적인 동양을 발견하는데, 그에 의해 “대표’된 것은 파시즘 속의 반공업 자본주의·농본주의적 요소이다. 그것은 동시에 범아시아주의가 된다. 물론 오카쿠라가 쓴 것은 전부 미학적 문제였는데, 그로 인해 정치성을 면(免)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때문

문명이 제공할 수 없는 ‘사랑(愛)’과 ‘미(美)’의 문명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문명이 갖고 있지 않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sup>56)</sup>

이러한 오카쿠라 텐신의 문명론적 입장은 시라카바(白樺)파의 미학에 까지 이어졌다. 특히 시라카바파와 동인 『폐허』파와의 관계는 이미 많이 지적되어온 바 있다. 예컨대, 시라카바파의 대표인물 중 한명인 야나기 무넨요시(柳宗悦)는 한국의 ‘폐허’파 문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sup>57)</sup> 염상섭은 그의 글을 두 편이나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한 바 있다.<sup>58)</sup> 흥미로운 점은 이 두 편은 모두 검열에 의해서 일부가 삭제된 채 게재되거나 연재가 중단되었다는 점인데,<sup>59)</sup> 이는 시라카바파의 정치적 입장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두 편의 글에서 야나기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려자기의 곡선미! 이것은 곧 조선 민족성의 상징”의 예술이라고 찬양하는 부분인데, 이는 ‘민족적 개성’을 존중하고 그로부터 미(美)를 발견하는 야나기 무넨요시의 역사적 인식 및 미학적 관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은 작품 속에서 ‘용비어천가’를 번역하여 일본 학계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심초매부를 떠올리게 한다. 작품 속에서 심초매부는 해운의 미술에 영향 주는 선배 격인 인물이며, 동시에 이들 세대의 사회주의 관련 활동에 상당히 동조적인 문제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상당히 신비로운 색채를 띠는 이 일본 국적을 가진 인물은 작품 속에서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그는 “국경과 인종과 전통과 지위와 노소를 초월한 사람”으로서 그려지는데, 그것은 ‘아마도다마시(大和魂)’을 중요시하는 일본 ‘낭인’이라는 점에 대한 언급에서 그 원인을 짐작해볼 수

에 더욱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조영일 역, 『네이션과 미학』, 서울:b, 2004. 143면.

56) 쓴겨, 류준필 외 역,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비, 2003. 63면.

57) 최인숙, 『염상섭 문학의 개인주의』,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7면.

58) 야나기 무넨요시, 제생(齋生) 역, 「조선일을 상(想)함(전6회)」, 『동아일보』, 1920.4.12.-4.18.; 야나기 무넨요시, 염상섭 역, 「조선인에게 정(呈)하는 서(書)(전2회)」, 『동아일보』, 1920.4.19.-4.20.

59) 최인숙, 같은글, 57-59면. 참고.

있다. 또한 그는 을사조약(1905년) 당시 일본 특명 전권공사로 있었던 해춘의 부친과 친분이 있으며, “일본합병에 대하여 숨어 있는 공로자”라고 언급된다. ‘일합합병’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듯한 염상섭의 가치론적 평가는 사실상 일본 국적의 일부 조선 낭인들의 ‘위험한’ 아시아주의의 속에도 긍정할 만한 소박한 민족주의의 속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되어야 할 사실은 1884년의 갑신정변이나 1911년의 중국 신해혁명은 모두 일본 낭인들과의 연대적인 정치적 활동과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다.<sup>60)</sup>

메이지시대 이래 아시아를 하나의 정치단위 혹은 문명단위로 설정하여 ‘아시아의 단결’을 주장하는 아시아주의적 발상과 사고는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sup>61)</sup> 그중 일부 문명론에 입각한 아시아주의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군국주의의적 민족주의 논리로 변형되어 온 것과 달리 아시아의 민족해방운동에 연대적이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주의의 문제가 복잡한 형태로 실재해있음을 드러낸다. 가령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와 같은 경우 『대동아합방론』(1893)에서 일본과 조선이 ‘합병’하여 서구 열강에 저항할 것을 주장했는데, 사실 타루이의 합방론은 “조선반도를 실제 점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합방이 이루어질 때 두 나라 사이의 대등한 지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공영권의 침략주의 구호와 구별되는 것이다.<sup>62)</sup> 역사의 우연적인 전개 속에서 이러한 갈래의 아시아주의의 애초의 초심(初心)과는 달리 발전되어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 메이지기의 아시아주의에 깃들어 있는 소박한 민족주의 자체를 전부 부정해야 하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점인 ‘을사오조약과 ‘신의주사건’까지의 연속적인 시간은

60) 쉰겨,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같은책, 65면

61)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우익 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2, 386면.

62) 쉰겨,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같은책, 87면. 참조.

메이지기 이래 아시아주의의 소박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운동의 주체성을 좌우하는 건강한 민족주의로 발전되어 가는 한 흐름에 대한 염상섭의 비판성을 구성하는 복잡한 회로를 반증하는 것이다.

작품은 ‘인삼사건’ 이후 ‘진·선·미’의 삼위일체로 상징되는 인식론적 공감을 형성한 세 인물 류진, 이해춘, 지순영이 북으로 향하여 간다는 열린 결말의 형태로 결속된다. 열린 결말이라 함은 그들은 일단 봉천에 도착하여 그 이후의 행방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사회주의’는 일찍 김호연이 제시한 ‘페러독스’를 넘어서 “정신과 물질이 융합된 제삼제국”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를 칸트 식으로 말하면, “경제적·정치적 기반을 갖지 않은 코뮌리즘은 공허하며, 도덕적 기반을 갖지 않는 코뮌리즘은 맹목적이다.”<sup>63)</sup>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의 역사적 시점에서 보면 김호연이 꿈꾸었던 “정신과 물질이 융합된 제3제국”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이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류사적 의미가 있다. 그 첫 출발을 알린 김호연, 이해춘의 ‘중간노선’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가 어느 지점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는지는 연작 성격을 보이는 작품들의 주제의식을 추적해나가는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횡보’의 의미

1927년부터 1928년 사이에 발표된 『사랑과 죄』는 당대 염상섭이 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의 실천적·이론적인 시대적 과제의 인식론적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염상섭 특유의 문제의식의 단초를 보여주는 첫 장편소설이다. 『사랑과 죄』, 그리고 평론 「유심적 고찰」이 씌어진 1927년,

63)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티크』, 갈은책, 198-199면.

염상섭은 계급과 민족의 요소의 관계를 미학적 범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둘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의 양립을 통합시키는 논리를 발견하고 이는 프롤레타리아와 민족문학 진영의 분열 속에서 주체적인 민족문학을 위한 조직 문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1920년대 초중반 코민테른이 한국 공산주의운동이 한국 본토로 옮겨오며 발전되는데 한국 내부에서는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양립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개혁으로서만 사회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자체가 일종의 '근대주의'의 태도였다. 즉 인간의 도구적 이성애 의존한 편향된 역사인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인 도덕 및 예술의 창조력을 폄하하고, 사회 속의 개인을 전체(주의)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상섭이 고쳐줬던 것은 도덕이 없는 사회주의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윤리가 없는 예술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것이 곧 염상섭이 직면했던 시대적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문학'을 방법론으로 삼았던 그가 예술의 의미를 찾아나서는 여정이기도 했다.

염상섭은 '계급'적 사유가 모든 전통/민족에 대해 부정하는 점을 문제로 적시하며, 개인과 사회 사이에 단독성으로써 민족성을 위치시킨다. 동시에 구원성들 사이를 연결 짓는 도덕/윤리로서의 '사랑'을 강조한다. 그것은 각 지역의 민족성에 의한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또한 '사랑'을 통해서 개인적 단위에서 시작되어 가족, 민족,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염상섭이 단독성/개성으로서의 민족성을 공동체의 내외부의 구성원들 사이를 '사랑'이라는 윤리으로써 의미를 확장시킨 것은, 민족성 자체를 계급성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볼셰비키적 논리나, 각각의 민족성 자체의 개성을 무화시켜 새로운 보편으로서의 민족/세계를 발견하고자 했던 '에스페란토'적 방식의 추상적인 아나키즘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오히려 단독성으로서의 민족성(염상섭의 표현으로는 '민족적 개성')

을 승인하면서 공동체 내부와 외부를 평등하고도 협동적 관계로써의 세계사를 구성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염상섭은 어떠한 ‘진리’로서의 보편적인 세계사적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프랑스혁명, 그리고 러시아혁명이 보여준 것은 그것이 지향하는 이념이 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지향과 상관없이 민주주의라는 내부 역사에서 산생되는 주체성으로서의 근대성의 발견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일원론적 세계사의 원리로서 자처하는 순간 외부에서는 폭력적으로 변모한다. 따라서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민주주의 운동으로서 그것이 지닌 ‘반동’을 통한 자기 발견이며, 경계해야 할 것은 그것 자체를 실체로서의 근대적 전환의 원리로 삼는 방식이다. 이러한 주체적 인식의 ‘횡보’의 태도는 염상섭 특유의 문제의식이 각기 월슨의 민족자결론과 레닌의 민족통합론으로 대두하는 민족주의 관념과 모두 거리를 두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주체적인 원점을 지키는 한편, 서구적 근대성과 일국 사회주의로 상징되는 일원론적 세계사 원리들과 변별되는 다원론적 세계사적 원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계몽주의와 사회주의의 시대가 겹친 동아시아의 상황은 교묘하게도 ‘과학성’이라는 가치론적 수식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인간의 도구이성에 대한 맹신이라는 문화적 풍조를 야기했다. 염상섭은 ‘과학’에 대한 숭상이 기계적, 물질적 인생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과학적 무도덕주의는 근본적으로 허무주의적인 가치지향을 내포하는 것으로 그것은 도래할 ‘물질과 정신의 제3제국’이라는 공동체의 사회적 윤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문학’을 방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성의 이론/지식에 인간의 능동적 사유를 위임해버리는 기계론적인 사유의 타성(惰性)을 거부하는 학문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뜻한다. ‘미적 근대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염상섭이 강조한 소설의 ‘공리적 사명’은 ‘예술적 양심’으로서의 윤리적 예술이며, 그것은 ‘인생을 위한 예

술'의 의미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예술적 양심'<sup>64)</sup>이야말로 그가 리얼리즘적 문학을 통해 계급문학과 순문학 진영 사이에서 곳곳이 '횡보'할 수 있었던 내적 원리가 되었던 것이다.

---

64) 염상섭, 「필주(筆誄)」, 『폐허이후』, 1924.2.; 『문장』, 같은책, 303.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염상섭, 「독립선언서」, 1919.3.19.  
염상섭, 「이중해방(二重解放)」, 『삼광』, 1920.4.  
야나기 무네요시, 제생(齋生) 역, 「조선일을 상(想)함」(전6회), 『동아일보』, 1920.4.12.~4.18.  
야나기 무네요시, 염상섭 역, 「조선인에게 정(情)하는 서(書)」(전2회), 『동아일보』, 1920.4.19.~4.20.  
염상섭, 「개성과 예술」, 『개벽』, 1922.4.  
염상섭, 「지상선(地上善)을 위하여」, 『신생활』, 1922.7.  
염상섭, 「여자 단발문제와 그에 관련하여: 여자계(女子界)에 여(興)함」, 『신생활』, 1922.8.  
염상섭, 「필주(筆誅)」, 『폐허이후』, 1924.2.  
염상섭, 「감상과 기대」, 『조선문단』, 1925.7.  
염상섭, 「계급문학을 논하여 소위 신경향파에 여(興)함」(전7회), 『조선일보』, 1926.1.22.~2.2.  
염상섭, 「민족사회운동의 유심적 고찰: 반동, 전통, 문학의 관계」(전7회), 『조선일보』, 1927.1.4.~1.16.  
염상섭, 「정신적 승화가 남녀 풍기(風氣)의 취체(取締)일까」, 『현대평론』, 1927.7  
염상섭, 『사랑과 죄』, 『동아일보』, 1927.8.15.~1928.5.4.(257회 완)  
염상섭, 『남충서』, 『동광』 9-10호, 1927.1-2.  
염상섭, 『이심』, 『매일신보』, 1928.10.22.-1929.4.24.(172회 완)  
염상섭, 『무화과』, 『매일신보』, 1931.11.13.-1932.11.12.(329회 완)  
염상섭, 『모란꽃 필 때』, 『매일신보』, 1934.2.1.-7.8.(153회 완)  
권영민 등 편, 『염상섭 전집』, 서울: 민음사, 1987.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소명출판, 2013.

2. 연구 논문 및 단행본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조영일 역, 『네이션과 미학』, 서울:b, 2004.  
가라타니 고진, 김재희 역, 『은유로서의 건축』, 한나래, (초판: 1998), 2007.  
가라타니 고진 이신철 역, 『트랜스크리티크』, 서울:b, 2013.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우의 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 로』, 역사비평사, 2002.
- 구리야가와 하쿠손(厨川白村), 임병권·윤미란 역, 『근대문학10강』, 글로벌콘텐츠, 2013.
-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 김경수, 「염상섭 소설과 번역」, 『어문연구』, 35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김종균 편, 『염상섭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이경식 역, 『러시아지성사』, 서울: 종로서적, 1975.
-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 정재정, 김병진 역, 『일본의 문화내서널리즘』, 도서출판 소화, 2008.
- 쑤꺼(孫歌), 류준필 외 역,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비, 2003.
- 유문선, 「식민지 조선사회 욕망과 이념의 한 자라: 염상섭의 『사랑과 죄』」, 『민족문학사연구』 13권 1호, 민족문학사학회, 1998.
- 이경민, 「염상섭의 자기혁명과 초기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60권0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 이보영, 『난세의 문학』, 서울: 예지각, 1991.
- 이정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혼혈의 양상과 의미」, 『현대소설연구』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 이중호, 「염상섭 문학의 대안근대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최인숙, 『염상섭 문학의 개인주의』,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지적 태도: 잡지 『삼광』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3호, 한민족어문학회, 2003.
- G.그로서 외 편저, 송주명 역, 『과학적 사회주의』, 새길, 1990,

<Abstract>

‘Sideways-walking(橫步)’ between ‘Nationalism’  
and ‘Socialism’

– With a Focus on Yeom Sang-seop’s <*Love and Guilt*>

Jin Yinhe

This paper focuses on Yeom Sang-seop’s work *Love and Guilt* in order to identify the epistemic structure behind Yeom Sang-seop’s literary ‘Sideways-walking’. *Love and Guilt* is an important work that investigates the intermediary political line between nationalism movement and socialist movements in the early to mid 1920s in Korea. In this work, Yeom presents the principle of integrating the nationalist and socialist movements by realistically illustrating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mong the youth generation. Particularly, Yeom sheds light on the metaphysically comprehensive understanding concerning Socialism by ‘Triangle Alliance’. The Triangle alliance was prevailing in Korea then and is characterized by its nihilistic tendency as a modern philosophical idea to supports its socialism understanding. Yeom conceives of ethnicity as singularity and emphasizes the ‘love’ as an ethic role in the members of nation from inside to outside. Thus, its ‘artistic moral’ from the ethic role could lead to the utilitarian duty of literature. As a result, Yeom presents the principles of pluralistic world history which are distinct form Western Modern or one-state Socialism in Soviet Russia, He also restores the right of morality and art which have been disregarded by mechanistic world view. ‘The Empire of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as a real socialism community prospected by Kim Ho Yeon in this work, has not achieved in history, however, its underlying logic renders the critical thinking of Yeom Sang-seop's literature still relevant today.

Key words: ‘intermediary’ line, Scientific socialism, nihilism, ethic, aesthetics of “truth, goodness and beauty”, ‘Sideways-walking’

투 고 일: 2021년 9월 1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3일